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4월 5일, 제 생일날 오후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르완다로 떠난 지 만 10년 3개월 만에 가지는 안식년입니다.

떠나기 한 달 전부터 병원의 행정 인수 인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부 병원장으로 물리치료 김남숙 선교사님을, 모든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맡아줄 operating manager로 방사선 최항덕 선교사님을 임명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관리와 혹시나 모를 법적 처리를 위해 나누리 공동체 선임이신 이상훈 선교사님을 이사장으로 하여, 은행의 온라인 송금과 현금 관리 위해 명의를 추가하고 RDB에 신고를 하는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 1주 정도는 업무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소소한 사건 사고가 있긴 했지만 비교적 떠난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은 분들의 마음 고생이야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진료 영역에서도 후배 사공 민 선생님이 한달 동안 저희와 미리 진료를 해 왔기 때문에, 역시 한 주 정도는 가끔 전화가 와서 약이나 환자 전원 등의 소소한 질문이 있었지만 떠난 지 한달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더 이상의 전화는 없는 걸 봐서도 잘 적응하고 잘 진료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마음 고생이야 있겠지만 말입니다.



10년간 정들었던 집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보서는 별로 짐이 없었는데 막상 짐을 싸려니 여기 저기에서 참 많이도 나오더군요. 나그네, 이방인 같은 선교사의 삶이어야 할텐데, 웬 살림살이들을 10년간 왜이리 많이 쌓아놓고 살았나 싶어 잠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리고 나눠주었습니다. 남은 짐들은 나누리 센터의 컨테이너 창고에 다 옮겨 놓았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서 다시 집을 구하면 써야 할 테니까요.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 의사가 오게 된 일과 현지 의사 면허를 받는 과정, 힘들었지만 결국은 시간 안에 이루어 졌고, 나누리 공동체의 선교사님들과의 인수 인계와 준비된 병원의 스태프들. 그저 모든 게 은혜입니다.

벌써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안식년을 축하해 주면서 하시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1년 금방입니다, 많이 쉬면서 누리십시오.." 계속 같은 말을 듣다 보니 벌써 1년이 다 간 거 같았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이러다 보면 금방일 거 같습니다. 시간은,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최근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르완다에서의 10년, 선교사로서의 10년이 과연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나를 자문해 보았습니다. 감히 예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의 1년을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시대, 특히 먹을 것 볼 것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은 아차 하는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허비해 버릴 듯 합니다. 더욱 깨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 시간임이, 한국에 있으면서 갈수록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안식년 동안, 더욱 깨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지기를 .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하며 편지를 마치려 합니다.

작년 말에 기도 편지에서 나누었던 17세 사지마비 소년 Narada의 소식입니다.

총 수술비 1,000만 프랑 중 안타까운 사연이 인정되어 900만 프랑을 정부 보조를 받고 나머지 100만 프랑을 나누리 병원에서 부담하여 3월에 수술받았고 현재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고 경과가 좋아져서 스스로 걷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르완다에서
박준범 백지연 드림.

